마이너리그에 '김치 유니폼' 뜬다

탬파베이 산하 더블A 팀 몽고메리 비스킷츠는 7월 17일(한국시간) 한국 문화유산의 밤을 맞아 하루 동안 팀 이름을 '몽고메리 김치'로 바꾼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는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하청업체 등이 들어서면서 한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구단이 공개한 유니폼 디자인. 사진출처 | 몽고메리 비스킷츠 트위터

김하성 결승 2점포 작렬 이래도 선발로 안쓸거야?

신시내티전 교체 출전…SD 3연승 이끌어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6)이 결승 2점포로 팀의 3연승을 이끌었다.

김하성은 20일(한국시간) 펫코파크에서 벌어진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에서 5-5 동점이던 8회말 2점 홈런을 터트리며 팀의 7-5 승리에 앞장섰다. 지난달 3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20일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2타수 1안타 2타점으로 이날 경기를 마친 김하성은 올 시즌 50경기에서 타율 0.213, 4홈런, 20타점을 마크하게 됐다. 샌디에이고(41승32패)는 내셔널리그 서부리그 3위를 달렸다.

벤치에서 출발한 김하성은 5회초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기 위해 다이빙을 시도한 타티스 주니어는 왼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했다. 대수비로 출장한 김하성은 5회말 첫 타석에선 범타로 물러났다. 그러나 8회말 2사 2루 2번째 타석에 들어서서는 볼카운트 1B-2S에서 신시내티 불펜투수 히스 험브리의 시속 142.5km 한 가운데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하성은 최근 대타 또는 대수비로 출장하고 있다. 시즌 초반에 비해 선발출전 기회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7경기에선 12타수 4안타 3타점으로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타티스 주니어가 다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당분간 김하성에게 다시 선발출전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날개 없는 추락 KIA의 해법은 또 양현종?

KIA "양현종 언제든 환영"…이건 아니잖아

양, ML 재도전 위해 홀로 싸우는데 KIA, 난데없이 양현종 구애 목소리 에이전트 "양, ML 도전 의지 강하다"

어딘지 모를 바닥을 향해 끊임없이 추락한다. 그런데 그 속에서 뜬구름을 잡고 있다. 2021시즌 KIA 타이거즈의 현주소다.

KIA의 초여름 추락에 날개가 없다. 최악의 한 달인줄 알았던 5월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최악의 6월 승패 마진을 기록 중이다. 4월에 벌어놓은 마진을 다 날려버린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시즌 최하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절망이다. 약체로 꼽혔던 전력이지만, 그나마도 시즌 개막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최형우, 나지완 등 베테랑 타자들이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데 더해 애런 브룩스, 다니엘 멩덴의 외국인투수 원투펀치까지 팔꿈치 염증 증세로 1군에서 제외됐다.

남은 전력에선 투타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최원준, 김선빈, 김태진 등 테이블세터를 이룬 야수들의 활약만 이어질 뿐, 이들을 홈으로 불러들일 중심타선의 시원한 타격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플랜A는 모두 무너졌다. 개막과 동시에 호기롭게 내놓은 외국인투수 4일 휴식 후 등판, 프레스턴 터커의 1루수 변신 등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하위권에 처진 KIA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맷 윌리엄스 감독(왼쪽)이 시즌 전부터 구상했던 플랜A가 모두 꼬인 상황. 프런트는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기보다는 꿈을 위해 떠난 '에이스' 양현종(텍사스)의 꽁무니만 좇고 있다. 스포츠동아DB·AP뉴시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지만, KIA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시즌을 치르고만 있다. 물음표만 잔뜩 남긴 지난해 트레이드의 여파인지 구단의 움직임은 올해 소극적이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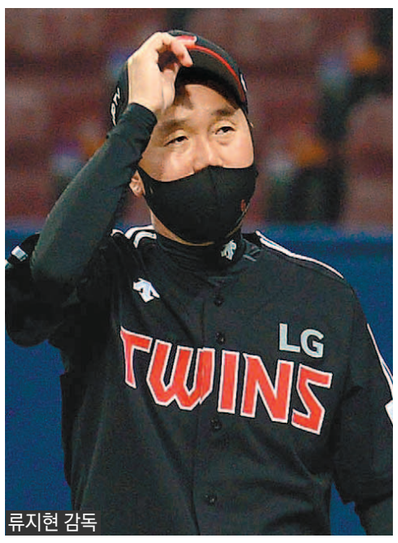
현실은 처참한데, 미래에 대해선 몹시도 낙관적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KIA에서 뛰다 프리에이전트(FA)를 통해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18일(한국시간) 방출대기 명단에 올랐다. 20일에는 마이너리그(트리플A) 소속이 됐고,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20일 KIA가 '언제든 환영한다'며 양현종의 국내복귀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선수 본인은 먼 타국에서 또다시 메이저리그 콜업을 위해 기약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전 소속팀'이 나선 꼴이다. 광주 홈구장 전광판에 새겼던 "양현종 선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양현종의 에이전트는 "선수 본인이 메이저리그에 다시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마이너행 언질을 받은 뒤 바로 방출대기 조치를 받은 것에 조금 당황은 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다시 잘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현종이 KIA에서 보여준 영향력과 헌신은 분명 상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꿈을 향해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떠나보낸 선수에게 다시금 미련을 보이는 게 KIA의 난국 타개법인지 씁쓸하기만 하다. 뜬구름만을 쳐다봐선 지금의 추락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류지현 감독

LG 류지현 감독 "올림픽 휴식기 전까지 6인 선발"

선발진 체력 떨어지고 30일엔 DH 임찬규, 내일 선발 복귀 긍정 요소

LG 트윈스가 올림픽 휴식기 전까지 6인 선발로테이션을 가동한다.

LG 류지현 감독은 20일 잠실 KIA 타이거즈전을 앞두고 올림픽 휴식기 전까지 계획한 선발진 운영 계획을 밝혔다. 현재 LG는 케이시 켈리, 앤드류 수아레즈, 이민호, 차우찬, 정찬헌의 5인 선발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컨디션에 따라 대체선발이 틈틈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이 5명은 꾸준히 선발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몸 상태다.

다만 변수는 있다. LG는 올해 외국인투수 2명에게만 주 2회 등판을 맡기고 있다. 국내투수들은 컨디션을 고려해 선발등판 후 휴식 주기가 조정되곤 한다. LG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올림픽 휴식기 전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이달 30일에는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는 KT 위즈와 더블헤더까지 치러야 한다. 5명의 선발투수만으로는 마운드 운영이 벅차게 된다.

우완 임찬규가 22일 인천 SSG 랜더스전 때 선발로 복귀하는 것이 정해지면서 일단 숨통이 트였다. 류 감독은 "임찬규의 선발 복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른 선발투수들의 컨디션 회복까지 커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감독은 "현재로선 선발 6명이 돌아가야 한다. 시즌 초반보단 선발투수들의 회복속도가 더뎌졌다. 차우찬과 정찬헌의 최근 투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막 이전에도 6인 선발을 고려했었다. 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찬헌이 시즌 초반보다는 등판 횟수가 잦아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여기에 차우찬까지 왔다"며 6인 선발로테이션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잠실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축구 〈19일〉

•하나원큐 K리그1 2021 〈14라운드〉 경기결과

광주전용 광주 1 (0-1, 1-0) 1 서울 1,364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4	6	슈팅	5	0
0	0	오프사이드	0	1
5	4	파울	7	8
1	4	코너킥	2	0

▲골=김종우(후55분, 광주), 나상호(전38분, 도움: 팔로세비치, 서울) ▲경고=곽광선, 한희훈(이상 광주), 차오연, 팔로세비치, 양한빈(이상 서울)

퓨처스리그 〈20일〉

•경기결과

	팀	1	2	3	4	5	6	7	8	9	R	
마산	KT	0	0	3	0	0	0	1	1	0	5	2시간58분
	NC	0	0	1	1	0	0	0	0	0	2	
	팀	1	2	3	4	5	6	7	8	9	R	
이천	롯데	0	0	0	0	5	0	0	0	0	5	2시간42분
	LG	0	2	0	0	0	3	1	0	X	6	

[승] 조한욱 [세] 한차현 [패] 강태경 [홈] 최태성(3회 3점 KT)

[승] 김진수 [세] 최동환 [패] 윤성빈 [홈] 나원탁(5회 3점 롯데)

메이저리그 〈20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43	28	1	시카고W	43	28	1	오클랜드	44	28
2	탬파베이	43	29	2	클리블랜드	38	30	2	휴스턴	42	28
3	뉴욕Y	37	33	3	캔자스시티	31	38	3	LAA	36	35
4	토론토	34	35	4	미네소타	29	41	3	시애틀	37	36
5	볼티모어	23	47	5	디트로이트	29	42	5	텍사스	25	45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M	36	28	1	시카고C	39	32	1	샌프란시스코	45	26
2	필라델피아	34	34	1	밀워키	39	32	2	LAD	43	27
3	애틀랜타	32	35	3	신시내티	35	34	3	샌디에이고	41	32
4	워싱턴	32	36	4	St.루이스	35	35	4	콜로라도	30	42
5	마이애미	31	39	5	피츠버그	25	44	5	애리조나	20	52

•경기결과

보스턴	7-1	캔자스시티	샌디에이고	7-5	신시내티
휴스턴	7-3	시카고W	LAA	8-3	디트로이트
LAD	9-3	애리조나	밀워키	6-5	콜로라도
뉴욕M	5-1	워싱턴	워싱턴	6-2	뉴욕M
필라델피아	13-6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6-5 〈연장10회〉	탬파베이
피츠버그	6-3	클리블랜드	뉴욕Y	7-5	오클랜드
마이애미	11-1	시카고C	토론토	10-7	볼티모어
미네소타	3-2	텍사스			

NBA 〈20일〉

•경기결과

밀워키	115-111	브루클린

NHL 〈20일〉

•경기결과

뉴욕I	3-2	탬파베이

프로골프 〈20일〉

•PGA TOP10

U.S. 오픈 3라운드

① 휴즈(캐나다)	-5	① 우스투이젠(남아공)	-5	① 헨리(미국)	-5
④ 맥길로이(영국)	-3	④ 디샘보(미국)	-3	⑥ 셰플러(미국)	-2
⑥ 존람(스페인)	-2	⑥ 울프(미국)	-2	⑨ 존슨(미국)	-1
⑨ 모리카와(미국)	-1	⑭ 임성재(한국)	E	㉛ 김시우(한국)	+3

•LPGA TOP10

마이어 LPGA 클래식 3라운드

① 코다(미국)	-20	② 매과이어(아일랜드)	-17	③ 삭스트롬(스웨덴)	-16
④ 오수현(호주)	-15	⑤ 조지아홀(영국)	-14	⑤ 찰리헐(영국)	-14
⑤ 하리가에(미국)	-14	⑤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14	⑫ 박인비(한국)	-12
⑫ 전인지(한국)	-12	⑫ 최운정(한국)	-12	㊱ 이정은(한국)	-9

•KLPGA TOP10

KGA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대회 최종라운드

① 박민지(한국)	-17	② 박현경(한국)	-15	③ 이정민(한국)	-7
④ 임희정(한국)	-4	④ 황유민(한국)	-4	⑥ 김수지(한국)	-2
⑥ 장하나(한국)	-2	⑧ 김지영(한국)	-1	⑧ 최예림(한국)	-1
⑩ 정윤지(한국)	E	⑪ 안나린(한국)	+1	⑪ 이가영(한국)	+1

아마추어 경기결과 〈20일〉

야구 ●2021 고교야구 주말리그(각 승인경기장)
•서울권A=경동고 10-2 성지고〈7회 콜드〉, 선린인터넷고 3-2 배재고 •서울권B=서울컨벤션고 12-0 세현고〈7회 콜드〉, 서울동산고 16-8 청원고〈7회 콜드〉 •서울,인천권=서울디자인고 5-3 우신고, 중앙고 12-3 동산고〈7회 콜드〉 •경기권A=소래고 8-1 유신고〈7회 콜드〉 •경기권B=야탑고 9-3 여주ID, 라온고 6-1 안산공고 •경기,강원권=강릉고 10-3 강원고〈7회 콜드〉, 비봉고 8-6 설악고 •경상권A,B=마산고 7-0 경주고〈7회 콜드〉, 도개고 8-3 야로BC, 포항제철고 8-5 밀성고, 용마고 15-1 대구상원고〈7회 콜드〉 •부산,제주권=부산고 2-1 경남고, 부산정보고 9-2 제주고〈7회 콜드〉 •대전,충청권=대전고 8-1 대전제일고〈8회 콜드〉, 북일고 6-5 청주고 •전라권=광주제일고 7-3 효천고, 인상고 14-2 진흥고〈7회 콜드〉

농구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3차 대회(서수원칠보체육관)
•여자부 결승전=부산대 66-53 단국대

배구 ●2021 정향누리배 전국 남여 중고 배구대회(전북 국민체육센터)
•남자 고등부 12강=천안고 3-1 광희고, 송산고 3-0 옥천고, 영생고 3-2 대전중앙고 •여자 고등부 A조=목포여상 2-0 부개여고 •여자 고등부 B조=중앙여고 2-0 포항여고 •여자 고등부 C조=근영여고 2-1 광주체고, 한범고 2-0 세화여고 •남자 중등부 A조=대연중 2-0 진주동명중 •남자 중등부 B조=남성중 2-0 소사중, 제천중 2-1 금정중 •남자 중등부 C조=본오중 2-0 문일중 •남자 중등부 D조=율곡중 2-0 각리중 •여자 중등부 B조=금천중 2-0 경남여중

테니스 ●제 76회 전국 학생 선수권 테니스대회(강원도 양구 테니스파크) •18세 여자 단식 결승전=최온유(송산중) 2-0 정보영(안동여고) •16세 여자 단식 결승전=명세인(오산GS) 2-1 손하윤(씽크론A) •14세 여자 단식 결승전=김아경(중앙여중) 2-0 이하윤(부천GS)

핸드볼 ●제 76회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강원도 삼척)
•남자 대학부 예선전=한체대 29-28 위덕대 •여자 대학부 예선전=한체대 29-21 위덕대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청주공고 38-25 부천공고, 남한고 20-16 대전대성고 •여자 고등부 준결승전=경남체고 23-20 인천여고, 황지정산고 30-25 일신여고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선산중 19-18 남한중, 천안동중 31-17 효성중 •여자 중등부 준결승전=일신여중 21-17 만성중, 세연중 27-19 인화여중

경기예고

아마추어 경기예고 〈21일〉

야구 ●2021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횡성,목동) ●2021 고교야구 주말리그(각 승인경기장)

축구 ●2021 K3리그(각 홈팀구장)

농구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3차 대회(서수원칠보체육관,오후3시)

배구 ●2021 정향누리배 전국 남여 중고 배구대회(전북 국민체육센터,오전9시30분)

테니스 ●제 76회 전국 학생 선수권 테니스대회(강원도 양구 테니스파크)

배드민턴 ●2021 전국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경북 청송,오전9시)

골프 ●2021 KLPGA 제 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레인보우힐스)

핸드볼 ●제 76회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강원도 삼척,오전10시)

태권도 ●제 18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태백 고원체육관,오전9시30분)

복싱 ●2021 전국 종별 복싱 선수권대회(청양군민체육관,오후12시)